

9위 두산 '연승 뒷심'... 가을야구 희망 살린다



두산 선수단이 17일 KIA전 3연승 후 기뻐하고 있다.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최근 매서운 기세를 보이며 '9위 탈출도 넘보기 시작했다'. 두산은 지난 주말 KIA 타이거즈와 3연전을 쓸어 담고 4연승을 내달렸다. 주간 성적은 4승 1패를 기록했다.

18일 현재 49승 5무 59패로 9위인 두산은 올해 시즌 도중 이승엽 전 감독이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 고전했다.

10위 키움 히어로즈(36승 4무 75패)에 14.5경기 앞선 두산은 9위가 거의 굳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상승세로 8위 삼성 라이온즈(53승 2무 58패)



주말 KIA 3연전 싹쓸이... 4승 1패 모두 역전승... 화수분 야구 부활 LG 이어 하반기 승률 2위에 올라 9위 탈출 기세... 5위와 5경기 차

를 어느덧 2.5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공동 5위 팀들에는 5경기 차로 뒤져 있는 상황에 잔여 경기가 31경기라 '가을 야구'를 포기하기엔 다소 이른 느낌도 들 정도다. 특히 올스타 휴식이 이후 승률만 따지면

두산은 13승 2무 10패로 10개 구단 중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냈다. 하반기 승률 1위는 전체 순위에서도 1위인 LG 트윈스의 20승 5패다. 두산의 상승세가 더욱 돋보이는 것은 두산 특유의 '끈끈한 야구'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나갔을 때와 같은 '화수분 야구'가 재현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두산은 지난주 4승을 모두 경기 막판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14일 NC 다이노스와 경기는 3-5로 끌려가다 6회 1점, 8회 2점을 내 6-5로 이겼고, 15, 16일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는 이를 연속 끝내기 승리를 따냈다.

15일에는 4-5로 뒤지던 9회 말 동점을 만들고, 11회말 안재석의 끝내기 홈런이 나왔으며 16일에는 김민태가 2-3으로 뒤진 9회 역전 끝내기 2루타를 날렸다. 또 17일 KIA전 역시 0-1로 뒤진 8회 대거 4득점 해 연승을 이어갔다. 주전급 선수가 자리를 비우면 어디선가 그 자리를 메울 선수가 등장한다는 '화수분 야구'는 16일 KIA전 두 번째 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윤태호, 17일 '대체 선발'로 5이닝 1실점 호투한 제한유를 주인공으로 탄생시켰다. 7월 초 전역한 안재석과 올해부터 주전으로 도약한 오명진·박준순 등의 성장도

두산 팬들에게는 흐뭇한 볼거리다. 조성한 두산 감독대행은 17일 KIA전 승리 이후 "오늘도 선수들이 믿기 힘든 집중력을 보여줬다"며 "이번 KIA와 3연전에서 퓨처스(2군)리그에서 기량을 갈고닦은 선수들의 공이 컸다"고 칭찬했다. 두산은 2위 한화 이글스와 19일 원정 3연전 첫 경기를 치르고, 주말에는 홈에서 kt wiz를 상대한다. 올해 한화를 상대로 5승 1무 6패로 비교적 선전한 두산이 한화와 주중 3연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5위 경쟁' 합류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경기 만에 베스트11 손흥민, 메시와 어깨 나란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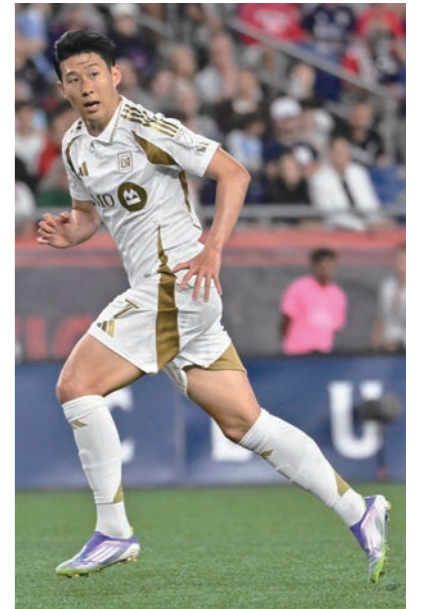


손흥민(33-사진)이 로스앤젤레스(LA) FC 유니폼을 입고 치른 두 경기 만에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라운드 베스트11(팀 오브 더 매치 데이)에 뽑혔다.

손흥민은 MLS가 19일(한국시간) 발표한 2025 정규리그 29라운드(팀 오브 더 매치 데이)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꿰찼다.

MLS는 "리그 이적료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은 MLS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LAFC의 원정 승리를 이끌었다"면서 "한국의 아이콘 손흥민은 역동적인 압박으로 첫 골을 만들어 낸 후 역습 상황에서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며 팀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고 소개했다.

손흥민은 17일 열린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뛰며 LAFC에 2-0 승리를 안겼다.



후반 6분 강한 전방 압박으로 마르코 델가도의 선제 결승 골에 발판을 놓은 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는 육심부리지 않고 마티외 슈아니에르에게 패스해 추가 골을 돕는 등 팀 득점에 모두 관여했다.

지난 10년 동안 활약했던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를 떠나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최대 2650만 달러(약 368억 원)에 7일 LAFC에 등장을 쓴 손흥민이 이적 후 2경기 만에 올린 첫 공격포인트였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의 최우수선수(POM·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도 선정됐다.



컨디션 난조 신네르 기관... 알카라스 '싱거운 우승'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사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신시내티오피콘(총상금 919만3540달러) 단식 정상에 올랐다. 알카라스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안니키 신네르(1위·이탈리

신시내티오피콘 단식 정상... 7월 Wimble던 결승 설욕

아)에게 1세트 게임 스코어 5-0으로 앞선 상황에서 기권승을 거뒀다. 신네르는 경기 시작 23분 만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기권했다. 이날 신시내티 지역의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었다.

이로써 알카라스는 7월 Wimble던 결승에서 신네르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이 대회 단식 우승 상금은 112만4380달러(약 15억6000만 원)다. 올해 6번째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우승

을 차지한 알카라스는 ATP 1000 대회 단식에서 8회 우승을 기록했다. 이는 현역 선수 중에서는 40년 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7위·세르비아) 다음으로 많은 우승 횟수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신네르는 최근 하드코र्ट 26연승 행진을 중단했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